

‘참여정부 게이트’ 터지나

검찰 ‘카지노·골프장 의혹’ 등 비리 확인 작업 착수

검찰이 공기업 수사 등을 통해 참여정부 인사들이 연루했을 가능성이 있는 비리 의혹을 확인하는 작업에 속속 착수하고 있어 수사 진전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권교체기에 이전 정권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던 것이 관례였다. 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비리 의혹 등 검찰이 착수한 일련의 수사가 참여정부 실세들에 대한 사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최근 진행된 해운사 로비 의혹 수사에서도 나타나듯 뇌물 등의 사건은 확실한 불증이 없는 한 공여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있어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운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말 그대로 ‘의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 수년간 제기돼 온 횡령 및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카지노 설립과 영업 과정에 IT업계 로비스트 이모씨가 개입해 여러 인사들에게 대규모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이씨 자택과 그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공사 자회사의 카지노 사업 관련 의혹은 2006년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 제기된 바 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였던 사건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랜드코리아레저 측과 로비스트 이씨의 로비 대상으로 K·L·Y 의원 등 확인되지 않은 참여정부 실

세들의 이니셜이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어 이 사건 수사가 ‘게이트급 태풍’을 몰고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공기업 비리 의혹 중 유일하게 대검 중수부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한 국석유공사 수사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전 사장이 직접 거명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의 제피로스골프장 탈세 의혹 수사에서도 이 골프장 대표이사였던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화삼씨가 거명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참여정부 시절 때도 여러 의혹과 설이 무성했거나 검찰이 한번 손을 대기도 했던 터여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또 정권 인사들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이 과연 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을 지는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F-15K 무늬만 첨단 2년간 하자 1,500건

수리 비용만 1000억원 달해

K 도입후 2년간 무상 수리 또는 현물구상 합의에 따라 무상으로 구상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1천200여건 가운데 940여건은 보잉사에서 전량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현물로 보상을 완료했으며 263건은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하자 발생 건수가 늘어나자 보잉 측은 19명의 ‘F-15K 하자 전담 구상반’까지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보잉으로부터 부족품 등을 인도받아 비행 전후 육안검사 또는 정밀기계 테스트 등을 통해 하자 부품을 찾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사청과 공군은 하자가 발생한 수리부품의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족품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엔진이나 레이더 등 핵심부품을 비롯, 비행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수리부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수리부품 및 지원장비 등이 지속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하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측은 F-15K 도입 후 2년 간만 하자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기한(2007년 9월말)이 만료된 부족품 가운데 하자품은 미국으로 보내 재정비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하자 부품 발생 건수와 정비 소요기간은 정비례한다”면서 “특히 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 부품은 미국으로 다시 보내 재정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15K 가동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잉 측은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대우 구명로비 의혹 김홍일 前의원 조사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박응석 검사장)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60) 전 의원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사건 수사의 최종 목표가 대우 그룹의 퇴출을 막기 위해 DJ정부 때 김우중 전 회장 측이 정치권 인사들

에게 로비를 했는지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란 만큼 김 전 의원을 조사하려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로비 의혹의 핵심 인사로 지목받고 있는 조종연(구속)씨와 관련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 지난주 김 전 의원이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했으나 건강상태

가 나빠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김 전 의원은 파킨슨병이 악화돼 지난 9일부터 입원 중이며 대화가 힘든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당시 정치권 실력자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구체적인 정황은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만큼 건강상태를 봐가며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공기업 CEO 선정 정치권 로비 위험수위”

청와대 대응지침 마련

정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CEO(최고경영자) 공모, 인선 과정에서 정치권 ‘줄대기’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보고 대응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가뜰이나 기존 기관장들의 조직적 반발로 교체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새 기관장 선발에도 잡음이 잇따를 조짐이 보이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기업,

국책은행 등의 신임 CEO 선발 과정에서 정치권의 로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여러 핵심 인사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 인사나 권력실세의 측근을 방자하는 인사의 개입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후보군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와대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이사의 경우 서류심사에 최종 합격한 6명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치권 인사 개입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금운용이사는 무려 220조원의 연금기금을 운영하는 직책으로 ‘투명성’이 최우선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 로비가 있을 경우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청와대는 또 우리은행장, 경남은행장, 광주은행장,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등 금융기관장 공모에서도 일부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28일(현지 시각) 네바다주 노스 라스 베이거스에서 주택 소유권 보호에 관한 토론 후 여성 지지자와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대의원 ‘매직넘버’ 45명 1,981명 지지 확보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경선 선두주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후보확정에 필요한 ‘매직넘버’ 대의원을 불과 45명 남겨두고 있다고 AP통신이 28일 집계했다.

오바마는 이날 당연직인 ‘슈퍼대의원’ 3명의 지지를 새로 얻어 총 1천 981명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매직넘버’ 대의원 2천26명에 50명선 이내로 다가갔다고 AP는 밝혔다.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은 1천779명의 대의원을 얻어 오바마와의 격차가 202명으로 벌어졌다.

힐러리와 오바마는 다음달 1일 55명의 대의원이 걸린 푸에르토리코 프라이머리에서 격돌한다.

오바마는 앞으로 며칠간 슈퍼대원의 지지를 더 많이 이끌어내고 푸에르토리코 경선에서 압승할 경우, 산술적으로 ‘매직넘버’ 대의원 2천26명 돌파가 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힐러리측은 그러나 민주당 당헌당의 규위위원회가 오는 31일 미시간과 플로리다주 대의원의 전당대회 투표권 인정문제를 논의하는 점을 들어 오바마가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하려면 멀었다는 입장이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는 전국 지지도에서 힐러리를 50%대 44%로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부처별 특별교부금 사용내역 공개 추진

한나라, 교과부 사태 계기

한나라당은 29일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특별교부금 ‘모교, 자녀 학교 지원’ 논란을 계기로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 공개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선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민 세금은 항상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공개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교과부 장관 등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사용처를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당선자는 “정부 예산을 처음부터 불투명하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게 아니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특별교부금은 왜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지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사용하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자금의 운영과 집행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별교부금(세)의 규모 축소 ▲사용 절차 및 대상 명문화 ▲사용 내역의 공개 ▲국회 사후 승인 절차 도입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부처의 재량 지출을 인정하더라도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면서 “한나라당이 야당이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18대 국회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www.kobada.com

코바다 한우탕

“무엇을든 맛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한우탕, 한우찌개, 한우국, 한우죽, 한우밥, 한우떡, 한우김치, 한우쌈, 한우떡볶이, 한우떡갈비, 한우떡볶이, 한우떡갈비, 한우떡볶이, 한우떡갈비

☎ 062-515-3339~40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남산동 1-1 코바다 한우탕

www.youngboohwa.com

영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직만 40명)

“영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직만 40명)”

교육과정	차적용 1반 (간호사, 조부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차적용 2반 (서화평화사, 산공차반, 공학차반)		
신규 모집반	09:00~18:00(월~금)	신규 공백차반	18:30~22:30(월~금)	
신규 모집반	09:00~13:00(월~금)	차적용 1반	평일반	18:30~22:30
신규 모집반	14:00~18:00(월~금)	차적용 2반	주말반(토,일)	14:00~18:00
신규 모집반	18:30~22:30(월~금)	차적용 3반	주말반(토,일)	14:00~18:00

▶교육료 이수 후 시험합격 시 1급 국가자격증 교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국비 지원 혜택 (80%~100% 환급), 근로자 능력개발 제도 소지자 혜택 (사용한도내 100%)

가족사랑 영양보호사교육원

☎ 062)364-1152~3
☎ 062)368-2070